

워시의 입도 막지 못한 270만닉스와 열린 9천피 시대

KOSPI 9,064pt(+2.3%), KOSDAQ 1,000pt(-3.0%)

FOMC 해석 매파적 FOMC에도 주식시장엔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

- 간밤 미국 주식시장 하락 (S&P500 -1.2%, NASDAQ -1.3%,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1.4%). 반도체는 인텔 공정 진전 및 마이크로 목표주가 상향 등에 힘입어 독보적 강세. 이번 FOMC는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결과 자체는 매파적. 연준은 정책금리 만장일치 동결. 물가 전망과 점도표 동시 상향. 올해 PCE와 근원 PCE 전망 크게 상향. 점도표상 연내 금리 인상 전망한 위원 절반 수준. 워시, 대폭 축소된 성명서에서 포워드 가이드스 삭제. 향후 정책 소통 단순화 시사. 물가 안정 우선 기조와 연준 운영체제 개편 의지 동시에 드러난 회의
- 다만, 이를 곧바로 '새로운 기축 사이클로 진입한다'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 이번 점도표의 매파적 전환은 의도적인 추가 긴축 예고라기 보다 최근의 헤드라인 물가 상황과 고용 시장 안정이라는 지표에 대한 기계적 반응. 실제 회의에서 인상안이 논의되지 않았으며 워시 의장도 에너지발 물가 충격의 1차, 2차 파급 여부에 대한 확신 부재하다고 언급. 시장 개입을 꺼려하는 워시의 성향을 확인했기에 앞으로는 발표될 경제지표 및 유가 안정화 및 원유 공급 장기간 정상화 여부를 더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전망. 현재 시점에서 금일 FOMC는 '불확실성 해소'로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 금일 KOSPI 및 나스닥100 선물 강세의 원인

수급 하루만에 순매수 전환한 외국인, SK하이닉스 6거래일 연속 순매수 중

- KRX KOSPI 현물 기준 개인 -0.4조, 외국인 +1.3조, 기관 -0.8조원 순매수. 전일 3거래일 만 순매도 전환했으나 하루만에 순매수 전환. 금주 9천피 경신의 주역은 외국인. 업종별로 5월 지속 차익실현했던 대형주, 전기전자(반도체, IT) 중심. 특히 시장 주도하는 대형주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화재 외국인 현재 6거래일, 5거래일, 4거래일 연속 순매수 중

특징업종 쏠림 현상에 상승 업종은 적지만 지수는 신고가

- 1) **MLCC**: AI 서버는 기존 서버 대비 MLCC 사용량 크게 증가. 고급 MLCC 증설은 장비-공정 병목으로 제한적. 수급 타이트가 27~28년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MLCC 업체들 강세(삼성전기 +8.3%, 한울반도체 상한가, 삼화콘덴서 +25.6%, 아바텍 +14.8%, 코칩 +13.2%) 2) **반도체**: 호실적+호수출+모멘텀 다수 보유한 최고의 가치주이자 성장주 (삼성전자 +4.6%, SK하이닉스 +6.5%)

이벤트 미중 주식시장 휴장

- 1) 미국, 중국, 홍콩, 대만 내일 휴장 2) BOJ 의사록(19일 오전 8시 50분)

시황 FOMC 마저 끝났다. 실적 시즌 준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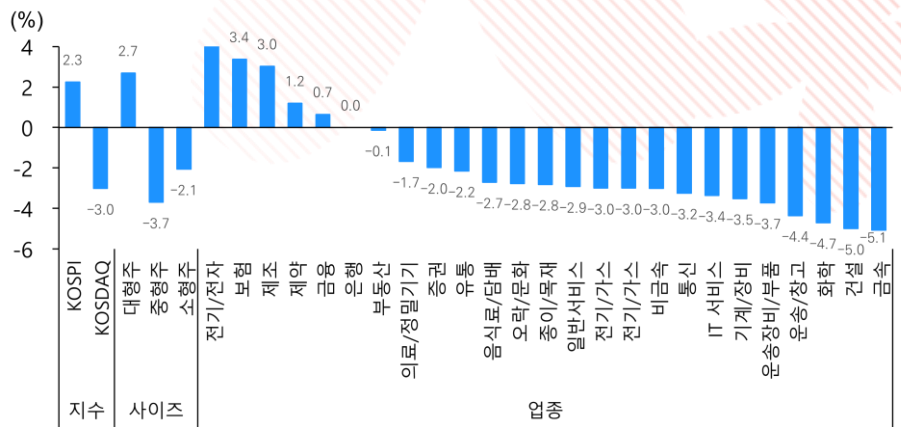
- 금일 KOSPI +2.3%, KOSDAQ -3% 등락. SK스퀘어, SK하이닉스 또다시 신고가 경신. KOSPI 상승 종목 109개 하락 종목 791개로 대형주 쏠림 극심, 지수 신고가 경신에도 행복한 사람은 적은 5월 말과 유사한 장세. 장중 1,000pt 이탈했던 KOSDAQ은 상승 245개 하락 1,436개. 일부 반도체 전공정, 제외하면 일제히 약세. 본격적인 실적 시즌 진입 이전 마지막 Big Event로 평가받던 FOMC 종료가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
- 전략) 6월 25일 새벽 5시 30분 발표될 마이크론 실적과 7월 초 발표될 2분기 삼성전자 잠정 실적 기점으로 실적장세 재개, EPS 재상향 기대 유지. 6월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 지속 등락(수출주 실적에 유리). 반면 KOSDAQ의 경우 ①외국인 귀환 지속(외국인은 대형주 매수. KOSDAQ의 장기순매수 주체가 아니며 개인조차 최근 KOSPI 대형주로 수급 이동 지속, 삼천당계약 사태가 결정적이었다는 판단), ②한은 금리 인상(성장주에 불리한 환경), ③대형주 실적장세 고려시 여전히 KOSPI 대비 매력도 떨어진다라는 판단유지. 낙폭 과대 구간 진입했던 6월 초와 달리 현재 기술적 지표도 해당 구간 탈피한 상황. ADR, RSI(14일) 등 낙폭 과대 판단 유보. 현재 진행중인 KOSDAQ 승강제 역시 프리미엄 지수에 편입된 우수 종목 제외한다면 자금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소외). 압도적 이익을 반도체 투톱이 벌어오는 입장에서 주가 쏠림 현상을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음. 호실적 대형주(조선, 방산, 전력기계, 증권 등)도 쏠림 영향권에 하락했기에 이익 모멘텀 더 안좋은 KOSDAQ 매수할 요인 부재

당일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단위: 억원)	KOSPI	KOSDAQ
기관	-7,779	-2,647
외국인	12,776	-1,325
개인	-3,754	3,925
거래대금	499,101	90,457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일간 수익률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